

지역 매 아 리

고창군 아산면, 도로변 풀베기 작업

고창군 아산면이 면내 주요도로 약 70km 구간에 안전하고 쾌적한 차량 통행을 위해 풀베기 작업을 시행했다.

11일 아산면에 따르면 이번 작업에는 10여명을 투입해 주민과 관광객의 통행이 많은 곳부터 집중적으로 풀베기 작업을 실시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월령교 연결도로 개통

정읍시가 성장촉진지역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월령교와 연결도로가 12일부터 개통된다.

정읍시가 성장촉진지역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월령교와 연결도로가 12일부터 개통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심원면, 해양쓰레기 환경정화

고창군 심원면에서 청년회와 체육회, 자원봉사단체와 어민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갯벌체험장 주변 해양쓰레기 중심으로 각종 해양쓰레기 등 침적 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대대적인 환경 개선 작업에 나섰다.

여름 휴가철을 대비한 이번 환경 정화 활동은 미관을 해치는 방치 해양쓰레기와 양식 어민들이 쓰레기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심원면과 지역 어민, 주민들이 힘을 모아 참여했다.

고창갯벌은 다양한 해양 생물의 산란·서식지일 뿐만 아니라 어업인 보호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부터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난 2007년 습지보호지역(연안습지 7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의 서식처로 심원면은 그 생태적 가치와 기능, 독특한 자연경관과 갯벌자원이 풍부한 지역이기도 한 고창갯벌을 보호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자암 박준승선생 기념관 착공

정읍시, 21억원 투입 내년 2월 말 완공 예정

정읍시가 자암 박준승 선생(이하 자암) 기념관 건립에 본격 나섰다.

시는 11일 자암의 고택지(地) 인근인 산외면 평사리 일대 6,045㎡ 부지 내에 170㎡ 규모의 한옥기념관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념관 건립에는 모두 21억원이 투입되고, 11일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기념관은 공사 착공과 함께 내부전시 운영을 통해 자암의 발자취와 업적으로 내부를 꾸미고 전시할 계획이다.

시는 "기념관이 개관되면 시의 서쪽(영원면)에 우리나라 독립운동 3의사(義士) 중 한 분인 구과 백정기의 사 기념관, 동쪽으로는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인 자암 선생 기념관이 자리잡게 됨에 따라 애국충절의 고장 정읍의 위상을 높임은 물론 애국애족과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애국정신을 높이는 산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읍시는 지난 11일 독립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1인인 자암 박준승 선생(이하 자암) 기념관 건립 착공식을 가졌다.

정읍시는 지난 11일 독립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인 자암 선생 기념관이 자리잡게 됨에 따라 애국충절의 고장 정읍의 위상을 높임은 물론 애국애족과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애국정신을 높이는 산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읍시는 지난 11일 독립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인 자암 선생 기념관이 자리잡게 됨에 따라 애국충절의 고장 정읍의 위상을 높임은 물론 애국애족과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애국정신을 높이는 산 교육장으로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더불어 잘 사는 지역 만들기 함께해요

고창읍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나눔 실천 착한가게 9개소 추가 신청

고창읍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난 5월에 이어 매일 일정액을 정기기부하는 착한가게 9개소에 대해 인증현판을 추가로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5월말까지 추가로 정기기부에 참여한 업체는 ▲양평해장국(대표 고광수) ▲오복술밭구이(대표 추승호) ▲트시엘블루(대표 유재욱) ▲잠수버섯마을(대표 황규관) ▲모양성술밭구이(대표 임미량) ▲엘요가센터(대표 정혜성) ▲한스텔리(대표 김종연) ▲커피베이(대표 김준형) ▲르네상스웨딩홀(대표 최순옥) 등 총 9개 업체다.

이렇게 모아진 상품은 고창읍복지허브화사업에 배분되어 도움이 필요한 고창읍에 거주하는 복지사각지대 이웃의 생계비 및 의료비,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등으로 폭넓게 사용된다.

이렇게 모아진 상품은 고창읍복지허브화사업에 배분되어 도움이 필요한 고창읍에 거주하는 복지사각지대 이웃의 생계비 및 의료비,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등으로 폭넓게 사용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주차장주변 녹색쉼터 조성 박차

고창군이 읍내권 도심 녹색쉼터 공간조성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창군이 읍내권 도심 녹색쉼터 공간조성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창군이 읍내권 도심 녹색쉼터 공간조성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2018 도시창안대회 도시학교 수료식

10개 팀 20여명 참여

지난 8일 2018 도시창안대회 도시학교(이하 도시학교) 수료식이 열렸다.

시는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기반 구축과 지속가능한 도시 활력 증진 방안을 찾기 위해 5월 25일부터 총 6차 시, 28시간에 걸쳐 도시학교를 운영해왔다.

모두 10개 팀 20여명이 참여한 도시학교는 정읍 원도심 지역의 문제를 탐색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찾기, 사업기획과 현장 견학 등 실무 특화과정으로 진행됐다.

당일 수료식에 앞서 각 팀은 수업을 통해 발굴한 지역자원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정리한 사업 계획서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 내용은 ▲배남인(배워서 남주는 사람)의 모두 배움 토대 ▲배움의 공동체, 생태 자연친화 융합교육 ▲뒷Book의 다같이 놀

자 독서한마당 ▲루시아 꽃담길의 천아트를 이용한 지역상품 개발 및 교육 ▲해봄(haevom)의 감성돋는 FOOD STUDIO(푸드스튜디오) 열렸다.

시는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기반 구축과 지속가능한 도시 활력 증진 방안을 찾기 위해 5월 25일부터 총 6차 시, 28시간에 걸쳐 도시학교를 운영해왔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난 8일 2018 도시창안대회 도시학교 수료식이 열렸다.

부안농기센터, 맥류 수확 및 보관비 이양담 초기관리 철저 당부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가 본격 맥류(보리, 밀) 수확철을 맞아 수확효과와 보관기술을 적극 보급하고 있다.

올해 보리 출수기에는 예년보다 잦은 비와 높은 습도로 붉은 곰팡이병이 많이 발생해 수량감소는 물론 이병된 곡물을 식용으로 이용시 구토, 복통 등의 여러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곰팡이 독소가 포함되어 있어 세심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붉은 곰팡이병에 걸려 이병률이 높은 맥류포장을 수확하고 건조할 때는 풍속을 최대한 해 이병률을 제거해야 한다.

특히 수확 즉시 건조를 실시하고 수

분함량은 겉보리·쌀보리는 14%, 맥주보리 13%, 밀은 12% 이하로 해 적정한 온도(15℃)와 습도(65% 이하)로 맞춘 저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확산을 막을 수 있으며 부득이 상온에 저장할 때는 6개월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붉은 곰팡이병에 감염된 포장에서 수확된 종자를 종자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종자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종자에 의한 감염을 막을 수 있다.이 밖에도 농업기술센터는 벼 일 모작 모내기가 마무리돼 가고 이모작이 시작되고 있는 지금 이양담 초기 잡초를 비롯한 저온성 해충 방제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featuring product images, descriptions, and contact information.